

# 1930년대 『삼천리』 소설을 통해 본 연애와 결혼 연구\*

—근대·전통·젠더를 중심으로

최 경 희\*\*

## 요약

본고는 연애와 결혼을 주제로한 『삼천리』(1929. 6. - 1939. 6)소설들에 나타난 근대와 전통의 혼재성이 식민지 근대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을 구분짓는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개념을 구축한 점을 살피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근대문화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확산됨과 동시에 전통의 귀환 또한 활발했던 때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키워드인 자유연애와 연애결혼, 전통적 가족제도와 신기정, 신생활 계몽과 미풍양속 등은 식민지 근대의 특성이 여성의 연애와 결혼에 미친 영향력을 가능하게 한다.

『삼천리』는 연애와 결혼을 주제로한 기사와 소설을 통해 이와 같은 근대와 전통 그리고 여성의 문제에 대한 당대 인식을 공론화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 삶의 준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협소하게 다루어졌다. 먼저 기사들은 자유연애와 연애결혼을 추동하면서도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독려했다. 연애의 신성성과 결혼의 숭고함을 내면화한 순결하고 전통적인 여성상을 지향했다. 근대적 연애의 에티켓을 소개하면서도 남녀의 성적 차이를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순결을 강조했다. 또한 결혼의 숭고함은 전통적 가족제도 재건, 부부 성의 과학화, 그리고 유명인사의 기정을 방문해 내조와 모성을 겸비한 근대적 가정관리법을 독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연애와 결혼을 주제로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8027099)

\*\* 경희대 강사

근대와 전통의 공존을 공론화한 이같은 기사들이 소설들을 통해서도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설들은 보편적인 감정과 일상으로서의 연애와 결혼이 아니라 전통과 근대를 둘러싼 식민지 근대의 특수한 사회적 코드로서의 젠더의식을 내면화한 기사들에 대한 당대 인식의 실재를 다양하고 깊이있게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것은 『삼천리』 소설을 분석하는 일이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사회·역사적 실재로서의 여성의 모습에 좀 더 밀착해 접근함으로써 근대여성의 성격을 더욱 심화·확대해 규명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김동인의 『구두』, 백신애의 『정조원』, 염상섭의 『질투와 밥』, 장덕조의 『해바라기』등을 중심으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인물들의 인식이 근대와 전통의 혼재라는 식민지 근대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다움의 규범화를 내면화한 점을 분석하였다.

주제어: 1930년대, 삼천리, 신여성, 구여성, 위치성, 연애, 결혼, 근대, 전통, 김동인, 장덕조, 염상섭, 백신애

## 목차

1. 서론
2. 연애의 자본화와 순결 트라우마
3. 전통과 근대가 혼재한 아내의 자력
4. 결론

## 1. 서론

본고는 연애와 결혼을 주제로한 『삼천리』(1929. 6. - 1939. 6)소설들에 나타난 근대와 전통의 혼재성이 식민지 근대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을 구분짓는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개념을 구축한 점을 살피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근대문화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확산됨과 동시에 전통의 귀환 또한 활발했던 때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키워드인 자유연애와 연애결혼, 전통적 가족제도와 신가정, 신생활 계몽과 미풍양속 등은 식민지 근대의 특성이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력을 가늠하게 한다.<sup>1)</sup> 단적인 예로써 『삼천리』는 신여성을 근대문화의 선두주자라고 호명했다. “경성 독신녀성 합숙소풍경”과 “아빠-드, 멘트”를 배경으로 소개하면서 이곳에는 “독신녀성이 대부분이고 또 직업녀성만 모여살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나, 자연히 녀교원, 녀사무원, 사회운동선상의 녀류투사들이 모여 살게”되었다면서 “근대식 아빠-드의 형태를 꾸며가고 있는” 곳에서 사는 신여성은 조선서는 경이적 존재”라고 했다.<sup>2)</sup> 반면 신여성은 가정살림에 있어 “서양식이 아무리 좋기로서니 팟죽에다가 우유를 쳐서 먹는다든지 까뚝이를 삼시창으로 꼬자 먹는데서야 기가 맥힐 노릇”이라 했고 “신풍조를 모방하기 때문에 내 것을 멸시하며 부스럽시 생활의 낭비”를 일삼고 있으므로 “살림이 서투른”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신여성의 낭비와 사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는데 “서양 배우들의 최신유행을 딸른 화장이나 하고 의상을 걸치고 백화점이나 돈 있는 사람의 사랑채로 놀라 다니면서 현대적 성격이 어떠니 신감각과 예술

1) 이에 관한 관한 논의는 Rita Felski,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35-51면,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27-33면, 김경연,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交通): 1920-30년대 여성문학의 형성과 여성잡지의 젠더정치』, 소명, 2017, 14-31면,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 정치, 1920-1934』, 소명, 2009, 218-266면, 태혜숙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178-108면, 214-242면, 이임하, 『계집은 어떻게 여성이 되었나: 한국 근현대사 속의 여성 이야기』, 서해문집, 2004, 64-75면, 김연숙, 『그녀들의 이야기, 신(新)여성: 한국 근대문화와 젠더 연구』, 역락, 2011, 13-34면, 공제옥 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학과학사, 2006, 83-106면, 김지영, 『연애라는 표상』, 소명, 2008, 35-64면,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56-89면, 김진송, 『서울에 탄소흡을 許 하라』, 현실문화연구, 2004, 202-243면, 임옥희, 『젠더 감정정치: 페미니즘 원년, 감정의 모든 것』, 연이연, 2016, 21-68면, 서영인, 『식민주의와 타자성의 위치』, 소명, 2015, 10-35면, 심진경, 『여성과 문학의 탄생』, 자음과모음, 2015, 99-128면,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 75-120면,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20세기 전반기 신여성과 근대성』, 푸른역사, 2004, 37-65면 등이 있다.

2) 초사, 『경성 독신녀성 합숙소풍경』, 『삼천리』, 제13호, 1931. 3. 1.

이 어머니” 참견하는 점이 가소로우며, 그럼에도 “구녀성들은 너무도 과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교양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점”이 많은 데 비해 신여성은 “지적수준이 높으므로 과학적 살림경영과 자녀양육에는 낫다.”<sup>3)</sup>고 했다. 이렇듯 신여성은 근대와 전통의 경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존재이자 화제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때 현모양처와 가정관리자로서의 자격을 두고 구여성과 신여성을 비교 평가했다.

근대와 여성의 문제를 논의한 연구서들<sup>4)</sup>은 이같은 점에 초점을 두고 현재까지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중에서 문화라는 1930년대 대중소설의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남녀 연애 관계의 양상을 분석해 연애의 진행과 갈등관계에 투영된 사회적 의미를 규명하였다. 엄상희는 1930년대 장편소설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적 구성 요소들이 현실의 부정성과 도덕적 혼란에 대해 추상적 도식적인 방식으로나마 도덕적 확실성을 대중에게 확인시키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이미향은 애정갈등형 대중소설에 나타난 자유연애는 전근대의 가족, 사회, 민족 중심주의에 대해 자아, 개

3) 신불출, 『신구녀성 좌담회 풍경』, 『삼천리』, 제8권 제2호, 1936. 2. 1.

4) 김지영, 『근대문학 형성기 ‘연애’ 표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5.

전훈지, 『1930년대 중반 염상섭 소설의 애정서사 연구 : 『백구』, 『牡丹꽃 필 때』, 불연속선』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3.

이형진,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탈가(脫家)의 상상력과 여성 표상』,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3.

이태숙, 『염상섭의 20년대 연애소설과 유학의 경험』, 『한중인문학연구』 Vol.29, 한중인문학회, 2010, 231-252면.

엄미옥, 『한국 근대 여학생 담론과 그 소설적 재현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7.

최미진 외, 『한국 근대소설과 연애담론 - 1920년대 『동아일보』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Vol.44, 한국문화학회, 2016, 245-291면.

문화라, 『1930년대 한국 대중소설의 여성인물과 연애서사 연구』, 『겨레어문학』 Vol.37, 겨레어문학회, 2006, 253-279면.

이미향, 『일제 강점기 애정갈등형 대중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9.

이지혜, 『방법으로서의 연애-여성혐오와 근대 인식』, 『현대소설연구』 No.6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383-413면.

엄상희, 『1930년대 장편소설의 멜로드라마적 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1.

인 등을 주장하는 근대적 자아각성의 의미를 띠고 논의한다. 이지혜는 염상섭의 소설이 식민지 근대시기의 연애의 모순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면 그의 연애서사는 오염된 연애-여성혐오이자 신성한 연애의 주체와는 다른 근대적 주체의 정체성을 형상화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선행연구들은 근대와 전통이라는 식민지 근대의 특수성이 연애와 결혼을 통해 여성의 위치성에 끼친 영향을 밀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한편 본고의 연구대상인 『삼천리』에 대한 논의들<sup>5)</sup>중에서 정미숙은 『삼천리』에 나타난 젠더 구성을 버틀러의 표상-섹슈얼리티-수행성 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젠더 표상의 경우 남녀는 각각 공적/사적, 이념/육체, 미래/현실로 대비되고, 민족주의와 결합한 섹슈얼리티는 정절과 의리가 합체한 여성상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송명희는 『삼천리』에 나타난 사회주의 페미니즘 담론이 일제 강점기 페미니즘 수용 과정중에 나타난 남녀의 민감한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하면서 이것은 경향과 작가 최정희가 잡지 편집에 크게 관여한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박경선은 1930년대는 서구 사조의 유입과 교육의 확대로 전통적인 결혼관에서 근대적인 결혼관으로 변한 시기라면서 『삼천리』가 이같은 사랑과 결혼관의 변화를 529건에 달하는 기사로 게재했음을 밝혔다. 그는 이같은 결혼관의 변화를 연애결혼과 이민족과의 결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삼천리』는 연애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이민족과의 결혼은 정치적 개입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다고 했다.

이같은 연구서들은 근대와 여성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그럼에도 『삼천리』가 연애와 결

5) 정미숙, 『일반논문 : 초기 『삼천리』의 젠더 구성』, 『현대문학이론연구』 Vol.43 No.-,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199-221면.

송명희, 『잡지 『삼천리』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담론 연구』, 『비평문학』 Vol.- No.38, 한국비평학회, 2010, 240-266면.

박경선, 『『삼천리』에 나타난 1930년대의 결혼관』, 『인문과학연구』 Vol.27 No.-, 강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0, 97-120면.

혼을 주제로한 기사와 소설을 비중있게 게재했고 이를 통해 근대와 전통의 혼재성이 내포한 젠더의식을 공론화해 근대적 삶의 준거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협소하게 다루어졌다. 『삼천리』 기사들<sup>6)</sup>은 자유연애와 연애결혼을 추동하면서도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독려했다. 연애의 신성성과 결혼의 숭고함을 내면화한 순결하고 전통적인 여성상을 지향했다. 근대적 연애의 에티켓을 소개하면서도 남녀의 성적 차이를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명목으로 전통적인 여성상을 내면화한 여성의 순결을 지향했다. 특히 신여성의 자유연애를 추문으로 다룸으로써 강박적 순결의식을 드러냈다. 또한 결혼의 숭고함은 전통적 가족제도 재건, 부부 성의 과학화, 그리고 유명인사의 가정을 방문해 내조와 모성을 겸비한 근대적 가정관리법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같은 기사들이 소설들<sup>7)</sup>을 통해서도 구현되고 있다는

- 6) 여기에 해당되는 지면은 다음과 같다. 윤성상의, 『애인과 남편』(제3호, 1929. 11. 13); 팔연화 기, 『사십오명으로 조직된 『청상과부구약부』,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 이 괴괴한 『예로』 단체』(제4권 제1호, 1932. 1. 1); 허영숙 외, 『정조과왜여성의 재혼론』(제12호, 1931. 2. 1); 『여학생 행상보고서』(제8권 제11호, 1936. 11. 1); 김동환 외, 『여류 문사의 『연애 문제』회의』(제10권 제5호, 1938. 5. 1); 『태평양을 건너온 미국 아가씨의 연애』(제7권 제7호, 1935. 8. 1); 김팔련, 『서울 독신녀교원명부, 청춘은 저무는데 이 가인들 언제까지 외로히 계시려나?』(제8권 제6호, 1936. 6. 1); 『조선의 노라로 인형의 집을나온 박인덕씨』, (제5권 제1호, 1933. 1. 1); 『조선 여류 10거물 열전, 박인덕, 황애시덕 양씨』(제3권 제11호, 1931. 11. 1); 김억 외, 『『여성을 논평하는』 남성좌담회』(제7권 제6호, 1935. 7. 1); 『신녀성들은 남편의 밥과 옷을 지어본 적 있는가? 업는가?』(제17호, 1931. 7. 1); 『세계적 무회 최승희녀사의 대답은 이리합니다』(제8권 제4호, 1936. 4. 1); 『여류작가방문기, 정열과 낭만 속에 잠긴 이선희녀사』(제8권 제11호, 1936. 11. 1); 박인덕 외, 『외국대학출신 여류삼학사 좌담회』, 『삼천리』, 제4권 제4호, 1932. 4. 1)
- 7) 여기에 해당되는 소설들에는 강경애의 『그 여자』(제4권 제9호, 1932. 9. 1), 김동인의 『구두』(제4호, 1930. 1. 11), 『여인수제, -온천잡감』(제6호, 1930. 5. 1), 김일엽의 『애욕을 피해야』(제4권 제4호, 1932. 4. 1), 나혜석의 『현숙(玄淑)』(제8권 제12호, 1936. 12. 1), 백신애의 『학사』(제8권 제1호, 1936. 1. 1), 『정조원』(제8권 제8호, 1936. 8. 1), 서광제의 『그 여자와 13』(제5권 제3호, 1933. 3. 1), 염상섭의 『씩은 호도』( 제1호, 1929. 6. 12), 『질투와 밤』(제3권 제10호, 1931. 10. 1), 『검사국대합실』(제7권 제1호, 1935. 1. 1), 『실직』(제8권 제1호, 1936. 1. 1), 이서구의 『마음의 달』(제8권 제12호, 1936. 12. 1), 이종명의 『최박사의 양심』(제4권 제10호, 1932.

점이다. 소설들은 보편적인 감정과 일상으로서의 연애와 결혼이 아니라 전통과 근대를 둘러싼 식민지 근대의 특수한 사회적 코드로서의 젠더의 식을 내면화한 기사들의 실제, 즉 당대인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시 말해 『삼천리』 소설을 분석하는 일은 다양한 텍스트<sup>8)</sup>를 통해 사회·역사적 실재로서의 여성의 모습에 좀 더 밀착해 접근함으로써 근대여성의 성격을 더욱 심화·확대해 규명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김동인의 『구두』, 백신애의 『정조원』, 염상섭의 『질투와 밥』, 장덕조의 『해바라기』 등을 중심으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인물들의 인식이 근대와 전통의 혼재라는 식민지 근대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다움의 규범화를 내면화한 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소설들이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계몽의 차원<sup>9)</sup>과 근대적 의미의 낭만적 사랑<sup>10)</sup>을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연애와 결혼에 대해 여성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혹은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가 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즉 연애와 결혼 서사를 통해 근대와 전통을 둘러싼 사회와 개인의 불화, 타협, 각성, 환멸, 순응, 불온 등의 재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성의 사유와 일상을 질서화하고 있음을 말

10. 1), 『순이와 나와』(제5권 제9호, 1933. 9. 1), 이효석의 『오리온과 임금 -『임금의 기교』 중의 한 편-』(제4권 제3호, 1932. 3. 1), 장덕조의 『애인』(제5권 제1호, 1933. 1. 1), 『해바라기』(제9권 제1호, 1937. 1. 1), 장혁주의 『새뿔』(제7권 제3호, 1935. 3. 1), 최정희의 『푸른 지평의 쌍곡』(제4권 제5호, 1932. 5. 15) 등이 있다. 20여편의 소설들 중에서 이 글에서는 근대와 전통이 공존한 식민지 근대의 특수성을 연애와 결혼을 주제로 가장 뚜렷하게 묘사한 김동인, 염상섭, 백신애, 장덕조의 소설들을 분석하기로 하겠다.

8) 이상경은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문제를 고민하는 우리 자신의 언어와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실재로서의 신여성성의 모습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여러 가지 텍스트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 2002, 78-79면)

9) 연애와 결혼을 근대화와 계몽의 측면에서 다룬 논의는 김경일의 앞의 책, 14-31면 참고.  
10) Anthony Giddens,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2003, 83-84면.

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김동인의 「구두」가 신여성의 소비욕망을 꼬집으며 연애감정의 성찰이 부재한 자유연애 시대를 회화한 것, 백신애의 「정조원」이 자유연애를 지향하면서도 강박적 정조관념에 사로잡힌 신여성의 내적 균열을 묘화한 것, 염상섭의 「질투와 밥」이 아내의 자격을 두고 구여성과 신여성을 타자화하는 지식인 남성의 지질한 내면을 밀도있게 그린 점, 그리고 장덕조의 「해바라기」가 연애결혼의 판타지 이면에 자리한 현실적 갈등 요소를 흥미롭게 그리고 있지만 규범화된 아내의 위치성을 넘어서지 못한 점을 분석함으로써 연애와 결혼을 바라보는 당대의 시대인식에 내재한 여성의 젠더의식을 살피고자 한다.

## 2. 연애의 자본화와 순결 트라우마

자유연애라는 근대적 문화를 선도한 인물로 모던보이와 모던걸은 소설에 자주 등장했다. 예를 들어 모던보이는 유행에 민감한 여성의 취향을 충족시켜 마음을 얻으려고 경성 백화점을 드나들거나(김동인의 「구두」), 팜프파탈적인 매력을 가진 여성에게 매혹되면서도 이성애와 동지에 사이에서 갈등했고 (이효석의 「오리온과 임금 -「임금의 기교」 중의 한 편-), 미모와 재능을 가진 여성에게 첫눈에 반해 비밀 연애를 시작했지만 아내와 연인 사이에서 방황했으며(서광제의 「그 여자와 13」), 여학생을 사칭해 남성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여성의 행보를 취재하며 묘하게 끌리는 모습(염상섭의 「검사국대합실」)등으로 등장했다. 또한 모던걸은 계약연애와 대안가족 등 혁신적 근대인의 일상을 실천하거나 (나혜석의 「현숙(玄淑)」), 불교에 귀의하려던 남자를 번뇌하게 했고(김일엽의 「애욕을 피하야」), 육체적 사랑의 유혹을 경계했으며(장덕조의 「애인」), 정조 강박에 사로잡혀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기도 했다.(백신애의 「정조원」)이같은 소설들에서 남성 인물들에게 자유연애란 여성의 소비욕망을 충족시켜 마



음을 얻는 일, 팜프파탈적인 여성의 유혹에 빠지는 일, 그리고 아내와 애인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이었다. 또한 여성 인물들에게 자유연애란 연애를 가장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일, 생활을 혁신해야만 가능한 일, 상대 남성을 죽음의 위협에 빠지게 하는 일, 그리고 정조를 잃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처럼 연애는 위험한 일, 부도덕한 행위, 그리고 일상을 뛰어 넘는 혁신적 일로 묘사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같은 당대의 연애 풍경에는 근대와 전통을 둘러싼 젠더의식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장에서는 김동인의 『구두와 백신애』의 『정조원』 등을 중심으로 이점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겠다.

1930년대 초 서구식 자본주의 시스템인 근대적 소비문화가 일상에 들어와 도시에 정착하면서 도시인의 연애 풍경도 변하였다. 연애의 낭만적 감수성이 통속적인 방식으로 소비된다. 1920년대 종교의 지위로 격상한 연애의 가치는 교환 가능한 경제적 기호로 대체된 것이다.<sup>11)</sup> 『구두』는 연애감정이 근대적 교환 가치로 소비되는 세태를 자신을 향한 남성들의 호감을 이용해 소비욕망을 채우는 K와 그녀의 사치와 허영을 충족시켜 환심을 사려는 수철을 통해 풍자한다.

수철은 K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던 중, 그녀가 고가의 구두를 신고 싶다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자 “도회에서도 제 一류로 꼽는 S 양화점”에 급히 가서 최신유행인 “흰 구두 한커레”를 구입하고 “어디 내어 노하도 흠잡힐”데 없음을 만족해한다. 그러면서도 구두가 “도로라 하는 것이 불완전한 이 도회에는 약감도룩 사치한” 물건임에 냉소한다. 자기처럼 K의 마음을 사려는 못남성들보다 빠르게 구두를 구입해 만족해하면서도 구두가 신여성의 사치품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수철은 K의 허영을 만족시키면 그녀와 연애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연애가 성사되면 두 사람은 각각 소비 욕망과 연애 욕망을 교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구두』

11) 임정연, 『1930년대 초 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모럴과 감수성』, 『현대문화이론연구』 Vol.58 No.-, 현대이론학회, 2014, 356면.

는 자유연애가 내면화한 근대적 교환가치를 묘사한다. 뿐만 아니라 K는 남성들에게 사치와 허영의 표상으로 비난받은 신여성, 즉 “신학문을 배워서 세상 것을 죄 이는”는 신문화의 선구자지만 “신풍조를 모방하기 때문에 내 것을 멸시하며 부끄럽시 생활의 낭비”가 심하다<sup>12)</sup> 비난받은 신여성을 재생산한 인물이다. 소설은 최신유행인 구두를 신는 것만이 중요한 K가 자신에게 호감을 얻고자 하는 못남성들을 활용해 소비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습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수철과 K, 두 사람의 연애가 불가능함은 예견된 것이었다. 누구보다 빨리 K의 소비 욕망을 채워줌으로써 그녀의 마음을 사려한 수철의 계획은 실패한다. K를 숭배하는 또 다른 남자 T가 먼저 구두를 선물했기 때문이다. K에게 구두를 전달하는 T를 몰래 훑쳐보며 수철은 열패감을 느낀다. 흥미로운 것은 실연(?)으로 인한 수철의 분노에는 감정소통이 부재한 자유연애를 꼬집는 시선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K에게 구두를 신겨주는 T에 대해 “결코 사랑을 구하는 러브 씨-니 아니”라며 냉소한다. 구두를 선물했음에도 T의 모습이 구차하고 처량하는 것이다. 즉 T또한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감정 교류도 나누지 못했음을 꼬집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철은 선물받은 구두에만 관심을 둘뿐, T에게 어떤 호감도 표현하지 않는 K의 모습에 냉소한다. 자신에 대한 남성의 호감을 이용해 소비욕망을 채우는 신여성을 혐오하는 것이다. 신여성에 대한 이같은 시선은 이중명의 「그 녀자의 삼단논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소설가 화자는 비극의 주인공인양 포장해 남성에게 접근해 욕망을 충족하는 신여성을 “공동변소 이상의 싹데리아”<sup>13)</sup>라고 혐오한다. 「구두」와 「그 여자의 삼단논법」은 이처럼 자유연애가 근대문화의 상징으로 각광 받았지만 그 폐단을 지적할 때마다 비난의 대상이된 신여성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두」는 환심을 얻고자 고군분투했지만 신여성의 소비 욕

12) 「신구녀성 좌담회 풍경」, 『삼천리』, 제8권 제2호, 1936. 2. 1.

망에 이용당한 남성을 통해 감정소통이 부재한 허울뿐인 자유연애 시대를 날카롭게 포착한다. 연애감정의 소통을 고민하기 보다는 여성의 욕망을 채워줌으로써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남자를 통해 근대적 문화의 선두에 있었지만 연애감정이 부재한 자유연애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환심을 사려는 남성들을 이용해 소비욕망을 채우는 신여성에게 대한 냉소의 시선을 보여준다. 자유연애의 폐단을 논할 때마다 신여성의 사치와 허영이 연애의 자본화를 부추였다는 주장<sup>13)</sup>과 같은 맥락의 전개를 보여준다.

『정조원』은 이웃의 눈과 연애를 금지한 어머니의 감시를 피해 비밀연애를 하던 여성이 실수로 연인에게 안긴 일로 정조연약이 깨졌다는 자괴감에 빠져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이야기이다. 백신혜의 문학이 연애와 결혼에 대한 당대 시대인식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sup>14)</sup>는 평가에 기대어 본다면 여성의 정조관념에 대한 가부장제 인식이 팽배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자유연애는 허울일 뿐임을 말하고 있다.

경순은 공동묘지를 데이트 장소로 정한다. 손목시계와 헤어핀 그리고 치마 저고리 등 근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외모를 꾸미는 그녀지만 이웃의 눈과 딸의 정조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으로 밤외출을 단속하는 어머니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녀가 공포를 감수하면서 공동묘지를 데이트 장소로 선택한 것은 자유연애를 향락과 유희로 보는 당대 인식<sup>15)</sup>에서 그녀 또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13) 여기에 해당되는 『삼천리』기사에는 『광무융희시대의 신여성총관』(제15호, 1931. 5. 1), 『거리의 여학교를 차져서 연애금지의 화신여학교, 제복의 처녀 백사심명』(제7권 제10호, 1935. 11. 1), 『여류 문사의 『연애 문제』 회의』(제10권 제5호, 1938. 5. 1)등이 있다.

14) 이맹, 『백신애 소설의 여성인식』, 『비평문학』 Vol. - No.53, 한국비평문학회, 2014, 191-192면.

15) 자유연애에 대한 당대인식을 보여주는 『삼천리』기사들은 자유연애는 향락과 유희에 불과하다고 했다. 진정한 연애란 육체적 결합이 아닌 진실한 남녀의 감정이 합쳐져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대사”인 결혼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과학적인 성위생관리, 신여성과 여학생의 풍기문란을 취재한 지면은 순결교육을 공론화했고 사회적 명사들의 좌담회는 애국심과 민족애에 부합되는 사랑을 권장했다.(『여학생행상보고서』, 제8권제11호, 1936. 11.1) ; 김동

공동묘지라는 장소는 경순이 정조를 감시하는 사회적 시선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경순의 강박증적 순결의식이 극대화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공포의 공간에서 연인을 기다리던 경순은 인기척에 놀라 “무의식간”에 인섭의 품에 안긴 일로 정조서약이 깨졌다고 죄의식에 빠진다. “순결한 처녀의 몸으로 결혼하겠다.”는 것, “참으로 정숙한 안해”가 되기로 한 그녀의 결심이 깨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순을 더욱 강박증적 순결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섭의 태도이다. 인섭은 경순의 자책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 즉 “한사람을 위함이란 것을 알때 경순의 이러한 생각이 끝없이 감사하고 엄숙”하게 느껴진다. 자기에게만 처녀성을 받쳐줬다는 굳건한 경순의 각오를 확인했으므로 흡족한 마음으로 경순을 달래는 것이다. 여전히 순결하다는 인섭의 주장이 강할수록 경순의 병적인 순결의식은 강화된다.

한편 여성정조에 대한 남성의 억압적 시선은 염상섭의 『검사국대합실』에서도 나타난다. 취재차 들린 “경성 디방법원 검사국 대합실”에서 기자는 우연히 마주친 “트레머리하고 노란 구두를 신은” 여학생이 “이경옥 사건, 밀매음”의 당사자임에 놀란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식보다는 순결한 이미지의 여학생이 성매매사건의 주범이라는 것에 경악한다. 성스러운 이미지의 여학생이 순결하지 않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또한 이효석의 『오리온과 임금』 『임금의 기교』 중의 한 편에서 화자는 “동지라는 늦김” 보다도 “녀자라는 늦김”을 주는 여성에게 매혹되지만 순결성을 의심하며 위험한 여성이라고 치부한다. 이처럼 두 작품이 순결의 유무로 이상적인 여성의 정체성을 규범화한 남성의 시선을 형상화한 것과 달리 『정조원』은 여성자신의 순결 트라우마를 통해 자유연애를 욕망하면서도 정조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성의 내적 균열을 보여준다. 신여

환 외, 『연애문제』회의, (제10권제5호, 1938, 5.1)

성들이 근대적인 고등교육을 통해 진보적인(서구적인) 연애관·결혼관으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가부장적인 전통 사회의 질서가 깊이 내면화된 여성들이라는 점, 즉 신여성들이 성·연애·결혼과 관련된 진보적 논설·사상과 실제 삶의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균열<sup>16)</sup>을 일으킬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혼전순결로써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경순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경순의 강박증적 순결의식은 배우자로서 여전히 순결하므로 아내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설득하는 경섭으로 인해 오히려 더 강화된다. 결국 경순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 『정조원』은 이처럼 여성의 주체적 사유와 행동양식을 억압하고 있는 여성 정조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경순의 결혼 반전이야기로 신랄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조원』은 백신혜 문학이 근대적 자유연애에 대한 선망과 동경 이면에는 전통적 순결과 정조 관념이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며 ‘정숙한 아내’라는 환상을 키운 사회적 시선이 있음<sup>17)</sup>을 담고 있다는 평가에 속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 3. 전통과 근대가 혼재한 아내의 자격

남성 지배의 가부장제는 신여성과 구여성을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배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타자화시키도록 만들었다. 모성과 여성스러움을 필요로 할 때면 자의식적인 신여성을 타자화했고, 근대적인 지식과 신가정을 필요로 할 때면 구여성을 신여성의 타자로 만들었다.<sup>18)</sup>무엇보다 구

16) 신정숙, 『1930년대 소설의 신여성 재현과 신경증—『여성』에 실린 「과실」, 「세기의 화문」, 「슬픈 해결」, 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Vol.- No.30, 대중서사학회, 2013, 232면.

17) 한승우, 『백신애문학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7, 150면.

18) 김민정, 『일제 시대 여성문학에 나타난 구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여성은 신여성의 부상과 함께 그에 대비되는 존재로서 새롭게 구성된 범주이다. 따라서 신구 대비 속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위치를 부여받았지만, 신여성에 대해 기대와 비난이 공존했던 것과 맞물려서 구여성에 대해서도 기대와 비난이 공존했다.<sup>19)</sup> 한편 『삼천리』는 “구녀성들은 너무도 과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교양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점”이 많은데 비해 신여성은 “지적수준이 높으므로 과학적 살림경영과 자녀양육에는 낫다.”<sup>20)</sup>고 했다. 이것은 전문적 모성, 근대적 가정 경영술, 양처로서의 내조자 등의 역할을 독려하며 스유티즘의 건설을 주장해 여성의 위치성을 가정 내에 한정짓는 결과를 가져온 계몽기 여성담론<sup>21)</sup>과 같은 맥락의 주장이다. 또한 『삼천리』<sup>22)</sup>는 신여성의 결혼생활 추문, 여성인사의 인물평, 가정탐방기, 좌담회 등의 지면을 통해 신여성의 결혼을 가십으로 삼거나 신여성과 구여성을 놓고 누가 신문물에 맞는 전문적인 가정주부인지를 비교했다.

『삼천리』 소설들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둘러싸고 근대적 주체이면서도 전통적인 여성성을 내면화한 여성을 이상적으로 그렸다. 모성은 여성의 천직이고 행복이므로 모성을 거부하는 여성은 생존가치가 없다거나(김동인의 『여인수제, -온천잡감-』), 구여성과 신여성 중에서 누가

Vol.14 No.-,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206면.

19) 이정선, 『1920~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여성 개념과 젠더 — 부정적 기표 '계집'과 구여성을 중심으로 —』, 『개념과 소통』 Vol.22 No.-, 한림과학원, 2018, 9면.

20) 『신구녀성 좌담회 풍경』, 『삼천리』, 제8권 제2호, 1936. 2. 1.

21) 김연숙, 『근대 주체 형성과 '감정'의 서사: 애화·비화에 나타난 '슬픔'의 구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Vol.29 No.-,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44면.

22) 『조선의 노라로 인형의 집을 나온 박인덕씨』, 『삼천리』, 제5권 제1호, 1933. 1. 1.

『조선 여류 10거물 열전, 박인덕, 황애시덕 양씨』, 『삼천리』, 제3권 제11호, 1931. 11. 1.

김억 외, 『『여성을 논평하는』 남성좌담회』, 『삼천리』 제7권 제6호, 1935. 7. 1.

신불출, 『신구녀성 좌담회 풍경』, 『삼천리』, 제8권 제2호, 1936. 2. 1.

『신녀성들은 남편의 밥과 옷을 지어본 적 있는가? 없는가?』, 『삼천리』, 제17호, 1931. 7. 1.

『세계적 무희 최승희녀사의 대답은 이리합니다』, 『삼천리』, 제8권 제4호, 1936. 4. 1.

『여류작가방문기, 정열과 낭만 속에 잠긴 이선희녀사』, 『삼천리』, 제8권 제11호, 1936. 11. 1.

더 아내로서 적합한지 비교했고(염상섭의 『질투와 밥』), 여성의 수절은 당연한 일이지만 남성은 재혼해야한다(이종명의 『순이와 나와』)고 했다. 또한 낙태의 고통을 여성만의 일로 한정하거나(이종명의 『최박사의 양심』), 신여성의 결혼관을 서구문화의 모방으로 규정했다.(장덕조의 『해바라기』) 이장에서는 염상섭의 『질투와 밥』과 장덕조의 『해바라기』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질투와 밥』은 축첩문제에 대한 남성중심적 시선을 밀도있게 구현한다. 구여성(본처)과 신여성(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화자는 “흥! 그러기에 발이 편하려면 버선을 크게 해 신고 몸이 편하려면 한 계집 데리고 살라지 안나!”라면서 친구 S의 편에서 일관되게 축첩 문제를 운운한다. 구여성에 대해 “나이 사십이나 되어서 인제 겨우 남편의 정을 알게 되다가 또 그나마 노치게 되니까 더 감질나서” 투기를 부린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구여성은 S를 이해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신여성은 S 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버티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한다. S의 동생 또한 “형의 방향을 신여성 탓으로 돌리며 “인제는 마음을 잡았었는데” 안타깝다고 한다.

『질투와 밥』은 이같이 구여성과 신여성을 축첩갈등의 원인 제공자로 치부하며 자신을 고통받는 불운한 남자로 인식하는 지식인 남성의 지질한 내면을 묘사한다. 뿐만 아니라 축첩이라는 전통적 가부장제 폭력이 근대 자본주의의 이해관계로 합쳐져 구여성과 신여성을 더욱 타자화하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신여성은 첩의 처지에서도 너그러울 수 있는 반면 남편의 두 집 살림을 보다 못해 가출하려해도 돈이 없는 구여성은 질투가 클 수밖에 없다고 한다. 무엇보다 S는 신여성이 살림에 보탬을 줄거라고 기대했지만 생활비 문제로 눈치를 보게 되자 “이럴줄 알았드면 큰집 살림을 그대로 두는 것을 잘못”했다며 원망한다. S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화자는 “어림없는 생각을 결코 웃거나 밉게 본다느니 보다 딱하게” 본다. 많은 유산을 탕진하고 신여성에게 기대어 생활고 문

제를 해결하려는 S를 연민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설은 남성중심적 가부장제가 내면화된 S를 신랄하게 묘사한다. S는 “작은집과 맞나든 경로와 맞난 후에 끝가튼 런에 생활사”를 낭만화하고 신여성과 헤어질 의사가 없다고 한다. 신여성이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자신의 괴로움을 화자에게 과잉된 감정으로 토로한다. 화자는 S의 실연(?)위기를 걱정하며 위로한다. S에게 아내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S는 머느리 혹은 아내라는 이름으로 관계 맺고 있는 상대에 대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과 책임감이 부재해 있는 『만세전』의 이인화<sup>23)</sup>와 닮아 있다.

『질투와 밥』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비교하며 신여성과 구여성을 타자화한 지식인 남성의 시선을 보여준다. 신여성은 “맹목적이라 할 만한 모성애”를 가졌으며 구 여성은 “에로틱한 문제”로 남편을 포기 못해 투기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가부장제 시선은 S의 집안일을 돕는 노인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신여성은 “얹전하고 짹짹하고 인정 잇고 경우 밝다고 입의 침이 업시” 칭찬하는 반면 구 여성은 “아이 날 때가 되어서 양반도 다 집어친 것 갖고 남편은 밥이나 치울 사람”이라고 한다. 또한 “싸우면 싸울 수록 해로웁건만 세상의 큰마누라란 모다 그러케 미웁한지” 한심하다면서 “그러케 요량이 부족하고 불뚝 심지만 가지고 무지렁이기 때문에 소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 여성의 모습은 『만세전』에서 남편의 사랑도 시가의 자상한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병들어 죽어가는 이인화의 아내를 연상케 한다. 구 여성은 이인화의 아내처럼 결핍되고 열등한 존재로서 새 시대의 교양과 통찰력이 부족하여 신여성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sup>24)</sup> 처지에 놓여 있다. 『질투와 밥』은 이같이 구 여성과 신 여성을 타자화하는 지식인 남성의 내면을 보여줌으로써 축첩을 둘러싼 가

23) 박정애, 『근대적 주체의 시선에 포착된 타자들』, 『여성문학연구』 Vol.6 No.,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67면.

24) 이상진, 『불안한 주체의 시선과 글쓰기 : 1930년대 남성작가의 아내표제소설 읽기』, 『여성문학연구』 Vol.37 No., 한국여성문학학회, 132면.



부장제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형상화한다. 구여성과 신여성을 타자화하면서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지식인 남성의 지질한 모습을 통해 신식과 구식이라는 억압적 틀로써 아내의 위치성을 규범화한 가부장제 의식을 폭로하고 있다.

『삼천리』는 연애결혼을 독려했다. 연애결혼을 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연애결혼보다 중매결혼이 더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천리』가 연애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담론을 표출한 것은 당시의 새로운 사조인 연애결혼을 대중들에게 알려서 강제결혼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대화의 필요성으로 전통적가족제도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기였기 때문이기도 하다.<sup>25)</sup> 장덕조의 『해바라기』 또한 연애결혼한 근대적 부부가 등장하며 부부갈등은 빠르게 봉합되는, 스위트 홈의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연애결혼의 미덕을 그리고 있다.

장덕조 소설에서 부부갈등은 타락의 기제가 아닌 삶을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사랑과 결혼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평범한 가정의 건설<sup>26)</sup>이다. 『해바라기』에서도 부부갈등은 자기반성으로 빠르게 해결되며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반성의 초점을 여성에게 국한시켰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아내로서의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가정 생활에 소홀했던 여성이 주부의 의무를 깨닫고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부부갈등의 원인은 서구적 결혼관을 모방한 여성의 탓이라는 것, 소설은 영화와 서적 등을 통해 근대적 신문화의 수혜자가된 신여성의 비현실적 결혼관을 꼬집으며 전통적인 여성관을 소환해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독려한다.

인애는 연애시절 다정했지만 무심해진 남편 때문에 결혼을 “연애의 무

25) 박경선, 앞의 논문, 116면.

26) 진선영, 『부부 역할론과 신가정 윤리의 탄생』, 『여성문학연구』 Vol.28 No.,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492-493면.

덤”으로 느낀다. 반면 남편은 고작 애정표현에 불만을 품는 아내가 “문학 소녀” 기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으면서 “진정한 부부애”란 달콤한 말 보다는 무언중에 믿는 일심동체가 부부의 참 모습이라고 한다. 이렇듯 아내는 유아적 낭만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눌러 낭만따위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생활인으로 묘사된다. 애정표현의 견해차로 인한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부부의 내면은 삭제되어 있다. 부부 갈등의 책임을 삶의 경험이 다른 남녀의 기질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에게 둔다. 남편의 편에서 아내의 의무를 훈육하려는 시선을 보여준다. 단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인애는 여학교 졸업 후 바로 결혼한 “아주 소녀같은 꿈을 그냥 안고 있는” 신여성이고 남편에게 “전신의 사랑과 온 생명을 받히고 있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겼다고 서술한다. 반면 남편은 불우한 환경에서 고학으로 상과대학을 나온 후 사회규범을 준수하며 성실한 사회인으로 일하다 인애와 결혼했다는 것. 연애시절 인애의 “세고를 모르는 처녀의 발랄한 매력에 끌리워” 문화생활을 즐긴 것이 “일생의 유일한 정서”생활이었던 남편은 결혼 후 일의 연장으로 유흥생활을 즐겼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남편에게 “애뜻한 정서”가 있을 리 만무하고 애정 결핍을 호소하는 인애의 태도는 미숙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삶의 동선에서 자란 부부가 애정표현의 시각차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인생 경험이 협소한 인애의 미숙함이 부부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해바라기』에서 스위트 홈의 회복은 인애가 아내의 자격을 재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부유하게 살아온 인애는 남편의 지난한 삶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 남편의 애정표현을 문제삼기 이전에 남편의 삶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애는 “혼인한지 3년이나 되었건만 이쪽도 남편의 취미나 식성”을 모르면서 남편을 “전적으로 소유치 못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철부지로 묘사된다. 또한 남편의 언어 폭력으로 갈등이 심화된 이후에도 소설은 남편의 내면묘사에 무게를 둔다. 남편을 “태양같이 밋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내, “해바라기같은 계집”이었던 아내의 옛모습을 그리워하는 남편의 입장을 묘사한다. 한편 순종하는 아내가 이상적인 배우자라는 가부장제 판타지는 전영택의 『여자도 사람인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소설은 신여성과 결혼했지만 “석달이 못되어 아들딸을 내버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고 어떤 사나이와 손을 잡고” 떠난 후 여성을 혐오하는 남자의 이야기이다. 남자는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안기로”작정하지만, 희생적이고 모성적인 여성을 만나 재혼해 “가난 중에도 크나큰 행복”을 느낀다는 이야기다.

『해바라기』는 모성적 희생을 내면화한 전통적 아내상을 지향한다. 인애의 동료 영화는 “부부에 강의”를 해준다면서 아내로서 인애가 얼마나 부족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를 지적한다. 영화는 인애의 결혼관은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무엇보다 서구적인 연애감정을 버리지 못한 탓이라고 꼬집는다. 살림에 충실한 가정주부가 될 것과 아이를 낳는 것이 우선이라는 등 내조에 전념할 것을 충고한다. 결국 부부갈등은 아내의 자격을 반성하는 인애를 통해 순조롭게 봉합된다. 인애는 영화의 충고대로 진정한 아내 노릇으로써 남편을 사랑하리라 굳게 다짐하며 적극적으로 남편과 화해하고자 한다. 인애가 남편의 말에 예전처럼 순종하자, 남편은 “안해의 얼굴은 정령 태양을 향해 살아가는 한 떨기 향일화”같다고 만족해한다. 이처럼 『해바라기』는 연애결혼의 환상 아래 잠복한 현실적 갈등 요소를 흥미롭게 그리고 있지만, 애정갈등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내조담론을 재생산한다. 스위트 홈이라는 행복한 결말은 아내의 순종을 담보한 가부장제 판타지로써 구현되고 있다.

#### 4. 결론

『삼천리』는 근대식 자유연애와 연애결혼을 추동하면서도 전통적 가족

제도와 여성상을 독려함으로써 근대와 전통이 혼재한 여성 담론을 유통했다. 연애를 지면으로한 지면은 근대적 연애의 도덕과 윤리, 남녀의 성을 과학적으로 학습하기, 국가와 민족 정서에 적합한 연애하기, 학교교육을 통한 순결 공론화 등을 다루었다. 특히 신여성의 연애를 추문으로 다루며 여성의 정조의식을 규범화하고 통제했다. 또한 결혼 기사는 전통적 가족제도의 재건, 부부성윤리의 과학적 접근, 그리고 무엇보다 시인과 소설가, 유학과 전문직업인 등 여성인사의 가정방문기 등을 통해 가부장제의식이 투영된 근대적 가정관리와 내조방법 등을 소개했다. 연애와 결혼을 주제로한 전통과 근대의 이같은 혼재성은 여성의 사유와 생활을 규범화하는데 활용되었다.

본고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구체적이고 밀도있게 살피기 위해 『삼천리』 소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김동리, 백신애, 염상섭, 그리고 장덕조의 소설들은 근대와 전통 그리고 여성을 둘러싼 젠더의 의미와 양상을 근대적 자본주의 사랑 표상, 강박적 순결의식, 가부장제 판타지, 성역할 고정관념 등의 주제로 형상화했다. 이같은 서사의 구현은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개인의 내면과 일상이 사회·문화적 공통감각과 그 저변에 흐르는 사회구조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삼천리』의 소설들은 근대와 전통을 둘러싼 당대 사회 구성원의 의식과 무의식에 자리 잡은 젠더를 표상한 주요한 서사라고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 1. 기본자료

『삼천리』(1929. 6. 12. - 1939. 6. 1) 연애와 결혼 기사

김동인, 『구두』, 『삼천리』, 제4호, 1930. 1. 11.

백신애, 『정조원』, 『삼천리』, 제8권 제8호, 1936. 8. 1.

염상섭, 『질투와 밤』, 『삼천리』, 제3권 제10호, 1931. 10. 1.

장덕조, 『해바라기』, 『삼천리』, 제9권 제1호, 1937. 1. 1.

## 2. 단행본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56-89면.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 정치, 1920~1934』, 소명, 2009, 218-266면.

김연숙, 『그녀들의 이야기, 신(新)여성: 한국근대문학과 젠더 연구』, 역락, 2011, 13-34면.

김지영, 『연애라는 표상』, 소명, 2008, 35-64면.

김진송, 『서울에 만스흠을 許 하라』, 현실문화연구, 2004, 202-243면.

공제욱 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학과학사, 2006, 83-106면.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27-33면.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56-89면.

김경연,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交通) : 1920~30년대 여성문학의 형성과 여성잡지의 젠더 정치』, 소명, 2017, 14-31면.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20세기 전반기 신여성과 근대성』, 푸른역사, 2004, 3-31면, 37-65면.

서영인, 『식민주의와 타자성의 위치』, 소명, 2015, 10-35면.

심진경, 『여성과 문학의 탄생』, 자음과모음, 2015, 99-128면.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 2002, 75-120면.

이임하, 『계집은 어떻게 여성이 되었나 : 한국 근현대사 속의 여성 이야기』, 서해문집, 2004, 64-75면.

임옥희, 『젠더 감정 정치 : 페미니즘 원년, 감정의 모든 것』, 연이연, 2016, 21-68면.

태혜숙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178-108면, 214-242면.

Anthony Giddens,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2003, 83-84면.

Linda McDowell, 『여성과공간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 2010, 42-57면.

Rita Felski,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35-51면.

### 3. 논문

김민정, 『일제 시대 여성문학에 나타난 구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Vol.14 No.-,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206면.

김수진, 『신여성담론 생산의 식민지적 구조와 <<신여성>>』, 『경제와사회』 Vol.- No.69, 한국산업사회학회, 2006, 255-284면.

김양선, 『식민주의 담론과 여성 주체의 구성 -『여성』지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Vol.3 No.-,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261-262면.

김연숙, 『근대 주체 형성과 '감정'의 서사: 애화·비화에 나타난 '슬픔'의 구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Vol.29 No.-,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44면.

서지영, 『부상하는 주체들 : 근대 매체와 젠더 정치』, 『여성과역사』 Vol.12 No.-, 한국여성사학회, 2010, 189-230면.

송명희, 『잡지 『삼천리』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담론 연구』, 『비평문학』 Vol.- No.38, 한국비평문학회, 2010, 240-266면.

박경선, 『삼천리』에 나타난 1930년대의 결혼관, 『인문과학연구』 Vol.27 No.-,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116면.

박정애, 『근대적 주체의 시선에 포착된 타자들』, 『여성문학연구』 Vol.6 No.-,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67면.

신정숙, 『1930년대 소설의 신여성 재현과 신경증-『여성』에 실린 『과실』, 『세기의 화문』, 『슬픈 해결』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Vol.- No.30, 대중서사학회, 2013, 232면.

이맹, 『백신에 소설의 여성의식』, 『비평문학』Vol.- No.53, 한국비평문학회, 2014, 191-192면.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 2002, 78-79면.

이상진, 『불안한 주체의 시선과 글쓰기 : 1930년대 남성작가의 아내표제소설 읽기』, 『여성문학연구』 Vol.37 No.-, 한국여성문학학회, 132면.

이정선, 『1920~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여성 개념과 젠더 — 부정적 기표 '계집'과 구여성을 중심으로 —』, 『개념과 소통』 Vol.22 No.-, 한림과학원, 2018, 9면.

임정연, 『1930년대 초 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모럴과 감수성』, 『현대문학이론연구』 Vol.58 No.-,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356면.

정미숙, 『일반논문 : 초기 『삼천리』의 젠더 구성』, 『현대문학이론연구』 Vol.43 No.-,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199-221면.

진선영, 『부부 역할론과 신가정 윤리의 탄생』, 『여성문학연구』 Vol.28 No.-, 한국여성  
문학학회, 2012, 492-493면.

한승우, 『백신애문학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7, 150면.

<Abstract>

## Research on dating and marriage narration of the modern woman in Samcheolli of the 1930s

Choi Kyung Hee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aracters' thinking and lifestyle regarding dating, and marriage appeared in Samcheolli of the 1930s. the modern-tradition-gender here means the outcome of naturally internalized social consciousness as the dominant ideology involved in changes such as history and social awareness, while establishing and distributing the social norms of the era alone. This thesis considered the patterns of cultural discourse appeared in Samcheolli in order to reveal that woman in dating, marriage, magazines is the fruit of the age consciousness. These Samcheolli reproduced modernization-oriented femininity as discourse with diverse and segmentalized themes such as femininity, dating, marriage, housekeeping method, family, and sex. Pages covered dating emphasized morality, ethics, and purity. Sound view on dating was encouraged as a must for a happy marriage. And pages covered marriage and family commonly considered self-sacrifice of women as virtues to take on for the sake of family stability and peace. Such dissemination of discourse as this suggests that personal thinking and behavior on dating and marriage cannot be independent from the consciousness of age such as society, culture and politics.

Key words: 1930s, Samcheolli, dating, marriage, modern, tradition, gender, the modern woman, Kim Dong-in, Yeom Sang-Seop, Jang



Dukjo, Baek Shin-ae

투 고 일 : 2019년 8월 15일

심 사 일 : 2019년 8월 19일-9월 7일

게재확정일 : 2019년 9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9년 9월 26일